49과 지혜를 구한 솔로몬 (우호철P)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멸망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친히 자녀삼아 주시고 이땅에 남은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교회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며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특히 교사로 부름받은 저희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더욱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하나님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전하는 자리 온전히 감당하다 주님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고 전해질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하셔서 하루 하루 수고하는 모든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희가운데 역사해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아침 또 주의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시간에도 함께해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할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시간 아버지하나님 다스려주시고 또 함께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울리는데요.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열와기상...

성경 열왕기상 1장을 찾죠.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시작하는 말씀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오늘 인제 함께 상고해볼 내용이 왕이된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왕이되고 그리고 하나님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 공과에 나와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열왕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왕이되고 그리고 기브아 산당에서 하나님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까지가 쭉~~이어집니다.

이제 내용은 잘 아실테니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부분만 좀 생각해보도록하죠.

열왕기상 1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왕이 나이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듯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돌아가실때가 되었어요.

30세에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사십년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이때나이는 70세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선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황에 있다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후계구도가 문제가 된거죠.

근데 그 밑에 5절, 5절에 ...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오십인을 예비하니]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높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붙잡아두시고 사무엘하 3장을 찾아보죠.

사물엘하 3장 2절부터 보시면...제가 읽어드릴께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나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댜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제 먼저 헤브론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때 나았던 아들들이 여섯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될력고 준비를 했데요.

근데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일 큰형 누구에요?

발음을 잘해야되는 분이 있잖아요. 암논

근데 이사람은 자기 여동생을 범해서 결국 암살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여기 길르압이라고 되있는데, 역대상 3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둘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어요. 어린시절에 일찍죽은거 같아요. 이름만있고 행적이나 이런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압살롬이잖아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쫒아냈던 결국 요합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쵸.

이~~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은 다 죽은거에요. 당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기바로직전에 제일 큰 아들은 아도니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때에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되려고 병거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병과 전배 오십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건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어~~제일 큰 아들이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다. 예...그렇게 볼 수 도 있죠.

근데 문제는 왕을 세우고 또 왕권을 주고 이건 하나님께 속해있는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요. 어~~사무엘 6장을 찾아보죠.

사물엘하 5장입니다.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많이도 나았어요.(10:35)

이 아이들은 여기 있는 자식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은 자식들이죠.

역대상 3장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주신 왕은 솔로몬이에요. 이 열왕기상 1장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서열상 가장 장자였고 그리고 그 아들은 여기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느 구절인데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순서상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체용이 심히 준수하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뛰어났던거죠.

요즘말로 얘기하면 얼짱에 몸짱에 요정도....

그럴수준 이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왕이되는걸 이걸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되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거 또한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일이 없더라이 제대로 안가리킨거에요. 자기 생각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것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자식농사는 실패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마땅히 행할길을 자식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그런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세계는 다윗의 초창기 그리고 요압의 절대적인 지지와 요압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도움도 받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좇아 도우나 종교적인 지지도 얻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일로 인해서 열왕기상 뒤에 2장한번 보시죠.

자기가 왕이되려고 모압하고 제사장의 지지까지 받아가지고 또 손님들 불러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한켠에서는 솔로몬을 왕을 세웠던거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솔로몬와 만세를 부르고 하니까 이제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

그 자리에 있으면 반역이잖아요.

왕을 따로 세웠는데... 그 일이 있고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2장 13절에 솔론몬이 밧세바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13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왕위가 다윗다음에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솔로몬에게..

그게 누구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높일려고 하고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뜻의 반역입니다. 결국 이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수넴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선왕의 부인들을 취한다고 하는건요.

왕위를 그대로 또 취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결국 이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

사람이 스스로 높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에요.

저번에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 배웠는데요.

모세의 경우도 마찮가지에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할려고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이니라]

25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보면 25절은 모세생각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려는 것을 깨닳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알아요? 아니요.

누가 너를 일으켜 세웠느냐? 또 누구를 쳐죽이려하는냐?

그러니까 그말 듣고선 그냥 도망가버리잖아요.

미디안광야로....모세가 사십년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갈고닦았던거 결국 한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모세가 배웠던건 이 22절에 모세가 애굽사람의 학술을 다 외어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이 가운데서 이 애굽에서 있었던 학술도 다 배우고 그 말에도 능했고 그일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셨을때는 어땠는데요.

미디안 사십년을 통과하고 미디안 광야를 팔십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불러서 쓰셔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요. 전 못가요.

출애굽기 3장 찾아보죠.

출애굽기 3장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떨기나무 불꽃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거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셨죠.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십년 전에는 이말씀 들어본적이 없어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말에 능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할수도 없었고요. 준비도 안되있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모세가 여기 몇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째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사십년전에 안그랬거든요.

자기손으로 구원받을줄 형제들이 알줄알고 했는데....

웬걸....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뭐했는데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익히고 있었을때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좀 해볼려고

안됩니다.

중요한건요. 중요한건

하나님이 쓰시느냐..쓰시지 않느냐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냐? 또 하나님의 뜻가운데...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쓰임 받는냐?

거기에 마음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주위에 아도니야...

이 아도니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내 뒤의 아들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솔론몬이었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중요한건 개인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가운데 정말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인정을 받고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저주입니다.

그건 축복받는 삶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도 찾아보죠.

예수님은 이땅에 오셨을때요.

예수님은 이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자 16절부터 제가 일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여기보면...

(25분 25초)

하늘로써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직접 들린게 세 번 있었거든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침례받을 때 ...침례받고 나서 ...

그죠.

두 번째는요.

변화산상에서 ...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마지막 유월절...

그때 어린...유월절 어린양으로 대신 죽어주실려고 ...

그길을 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에 힘을 더해주신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반과 중반과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걸음을 힘을 더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도니야는 결국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준비했고

결국은요. 그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시편 37편 찾을까요?

시편 37편 10절...

함께 읽지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그 어떤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그리스도안에서 받게되는 고난은 잠깐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더해주시는 영광은 영원한거에요.

반대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되는데....

이런상황가운데....솔로몬을....다윗이..자기 후계자로 지목하고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느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어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아도니야는 안불렀을까?

왜 아도니야한테는 이런이야기는 안했을까?

하나님...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음 왕위를 넘겨줄 사람은 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말이냐면요.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일을 다시 생각하라 무슨일인데요.

이일을 기억하고 ...이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일이 뭔데요.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46장 1절부터 보면요.

1절, 2절은 이건 우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3절 4절은 무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5절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누구에게요, 우상의 모습이잖아요.

우상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 주머니에서 6절 시작에...그리고 그것으로 은장색에게 주어가지고 그걸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이거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에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일을 기억하고 아니...우상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장부가 되라..

이일을 다시 생각하라.

여기서 이일을 무엇 때문에 해요?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편에 서라는 거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그게 뭐에요.

첫째 장부가 되라.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솔로몬 이거 지켜요? 못지켜요?

잘 지키다 말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유언도 끝까지 못지켰어요.

9절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이스라엘 역사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증거를 이스라엘은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삶의 흔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서 그 우상들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거에요.

자기 아들한테...장부가 되라고

이말은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바로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부가 되라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힘있게 살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일 없는것처럼...힘을 낼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때에요.

고린도전서 16장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깰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수 있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에 있어야 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릇 행하고...

그게 반역입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보죠.

세상의 지식은요.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의 지식은요.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우리학생들이 공부안하고 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있잖아요.

성경에 전도서..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래서 안한데...

이게 이게 핑계대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은요. 알면 알수록...

걱정도 근심도 많아져요.

1장 ..전도서 1장도 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그러면 참 좋을거 같은데..

지혜가 많으면 성경은 번뇌도 많데요.

근데 이말씀을 누가하신거야?

지금 이말은 누가한거냐고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문제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알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요.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감사할일이고 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일이 되는겁니다.

예례미야 9장을 찾지요.

예례미야 9장...

예례미야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인생중에 힘써야 될게 뭐라구요?

하나님을 아는거....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아는겁니다.

자랑하는자는...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것과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것을요.

이게 정말 어렵고 곤란하고 힘없는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이 교회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그래서 마음의 약간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돌아가..

이 잘못알고 있는거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강한사람들 없어요.

감당키 어려운 것을 하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다니는 기독교인들인 아니라....

쳐치 고어(Church goer)가 아니라...

실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닳고....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하나님의 사람들....이사람들만큼 강한게 없어요.

잠언 1장을 보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잔해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요.

세상의 학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그사람이 갖고 있는

그사람은 세상의 많은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탕이 없는 거에요.

학위가 많으면 뭐할거냐고요.

세상의 많은 지식을 갖고 살면 뭐할거냐고요.

아무것도 못갖고 가요.

바탕이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요.

사람에게 바탕이 되는 지식 근본이 되는 지식....

그게 뭐라고요. 예~~~~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실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도 분명히 뭐 대강 인정하고 그렇다고 치고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타협이 안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죠.

(41분 37초)

여기 2장에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이 결국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열왕기상 3장에...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앞에 제사를 드려요

4절....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보시면 왜 솔로몬이 산당에...기브온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까 ...

역대하 1장입니다. 여기...표시해 두시고요.

역대하 1장입니다. 1장을 보죠.

역대하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여기 기브온에...기브온 산당에 갔다는건 어디로 간거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니까 거기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거에요.

왜요?

아직 성전짓기 전이니까...

거기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아...열왕기상 20...아니..역대상 21장에 보면

번제단도 거기 있고, 거기에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솔로몬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다시 돌아보죠.

여기 3절에 이해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오히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쩔수 없이...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래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에게 큰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46:05)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역대하 1장도 찾아보죠.

역대하 1장 10절에 보시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여기는 누가 능히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겠습니까?

이 지금 여기 이제 열왕기상 3장에 했던 내용을 역대하에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실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던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 3장에는 열왕기상 3장에는 지혜와 지식, 여기 열왕기상

3장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역대하 1장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근데 여기 지혜라고만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을까? 왕이 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면서도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백성들을 다스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구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더 구합니다.

단지 지혜와 지식을 차가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초창기의 모습은 솔로몬이 참 좋은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야 될게요.

열왕기상 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더 알게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한게 아니거든요.

뭘 구한거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던거에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주는...줘야되는 베풀어야 되지되는 것에 대해서...구한거잖아요.

만일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였다면 그걸 구했다면 솔로몬 어떻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안빠졌을꺼에요.

근데 여기 보며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지혜는 구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한 건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1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걸 구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그 밑에 11절도 그렇고 역대하 1장에도 보면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구했다고 하나님도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이게요. 이거에요.

맞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맞았다라는 말은 사명에 대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다음에 세우신 왕이 솔로몬이야...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네가 충성되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신거에요.

그래서 그 밑에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라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한 말씀 더하셔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도 더해줄게....

근데 끝에 말년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요.

6절...하나만 더 보시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게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을 만 하기 충분합니다.

예...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읽을때마다요.

이제 애가 전 다윗처럼 살지 못한다는걸 압니다.

그런데....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그쵸...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아이가 나를 잘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 내 아비 다윗이 내 친구 누구가 ...

내 아버지 누구가 내 어머니 누구가

성실과 성실이라고 하는건 ...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모습이 있는거죠.

이건 원래 의미가 이래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라는 원래 의미가 성실안에서 공의안에서마음의 정직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니까....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공의 ...

공의라고 하는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곧은 마음으로 일관되어진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면 내 아비 14절에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솔로몬이....

솔로몬은 물론 이제 후에는 말년에는 부인들이 많았어도 부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말년이 초라해졌고 그리고 말년에 정말 ...

그리고 그 다음 대에는 나라가 두쪽이 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격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초창기에 솔로몬이 어린나이에 왕이되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초창기에 모습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맞춰서 정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앞에 구했던 그런 삶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건요.

솔로몬....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들...

제일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겁니다.

저 좀 보시죠.

하나 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께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끼치는 영향력은 작은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사...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에...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거에요.

그보다도 귀한일이 어디있습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힘들지요.

어렵고...

맡겨주신 일이 막중한 것을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알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11월 12월 되면요.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엔 그만 둬야지...

힘드니까...함든겁니다.

당연히...

고난하고 같이 받는 거거든요.

고난 없이 받게 될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주저하고 어려운 일을 주저한다면 받게될 것도 없는겁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마음을 좀...마음을 좀 다지고 그리고 하나님앞에 지혜로운 갖는것도 달라고 하는 것도...구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일이고 그리고 부탁하신 사명을 주님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교사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게 그 모습이 전달이 되고 또 가르치고 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기회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어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온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하셔서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하루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더욱 더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또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에 더욱 더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 지도록 다스려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친히 다스려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